

간수기와 찰떡궁합이라고 한다.

「보통은 심고 나서 3년은 가지 만들기를 4년은 초착과 만드는 일입니다. 조인트는 4~5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다. 그것에는 토양수분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간수기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기는 핀포인트에서 근원에 점적간수하는 방법이다. 밭에 전면 간수하는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그보다 근원에 소속간수 하는 쪽이 상당히 수분공급효율은 높다고 한다. 전원도 수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로 뛰어난 것이다. 게다가 제작이 간단하고 파손의 염려도 없다. 반투명 탱크에 녹조가 끼거나 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등유용 탱크라면 강도가 있으므로 파손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㉔

묘목을 10배로 늘리는 비법

-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과수작업의 지혜주머니 -

이와모또 카즈히코

좀처럼 크게 자라지 않는 모종

초봄의 모종은 저장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싹이 나와도 5~6장의 잎이 10cm 전후에서 바로 멈춰버린다. 가을에 심었던 봄에 심었던 상관없이 그렇다.

이 상태 그대로 장마비를 맞으면 반개월정도 지나서 2차 성장을 시작하지만, 장마가 끝나면 바로 멈추어 기껏해야 20~30cm 밖에 크지 않는다.

적심과 간수로 크게 된다.

무엇보다도 처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종의 생장에는 심는 시기와 더불어 「초봄의 첫 번째 수고」가 크게 좌우한다.

모종을 잘 보고 있으면 초봄에 싹이 강풍에 꺾이거나, 벌레에 물어뜯기거나 하면 1개월 후에 2차 성장을 시작한다. 빨리 상처 입은 가지는 2차

성장도 빠르고, 잘 자라며, 그 중에서는 3차 성장도 볼 수 있다.

또한 묘목가게에서는 모종의 충실함을 위해 적심을 반복해서 감귤, 포도 등에는 4차 성장도 시켜서 오래가고 큰 모종으로 키우는 기술이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모종을 빠르고 크게 하는 포인트는 적심과 간수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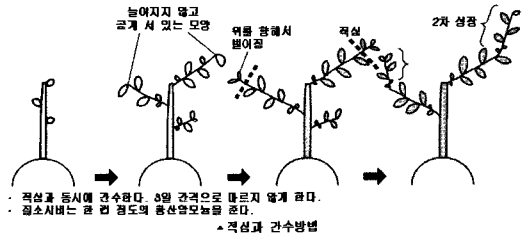
4월 하순 잎이 2~3장일 때 적심

싹이 자라고 있을 때에는 늘어지지 않고 곧게 서 있는 모양이지만, 기세가 강해져서 생장점이 위를 향해진 것이다. 시기는 4월 하순으로 적심과 동시에 간수도 시작한다. 또한 질소비료를 주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가지는 빠르게 충실해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싹이 움직이기 시

작하기까지 간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비법의 포인트가 된다. 대부분 적심하고 나서 3~4주간 싹이 움직이므로 가지가 멈출 듯 할 때 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면 3차 성장까지 시킬 수 있으며 식재한 해에 보통 15cm 에서 1~1.5m(감의 경우)까지 자라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을 심은 2년째도 반복시키면 2~2.5m의 크기가 되고, 3년째에는 굉장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10a 1~1.5t의 수량을 수확할 수 있다. 특히 식재한 후 장마까지 간수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개식은 간수를 가장 중시한다.(前나라현 과수진흥센터) ㉞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목	자연 상태	성장기			연부가지의 2차 성장		
	비법1 (나무의 죽다)	성장기 적심	X	2차 성장기	X	3차 성장기	경지기
	비법2 (죽은 작목)	성장기	X	적심	2차 성장기		꽃눈 회복기

▲ 자연 상태와 비법에 의한 목목생육의 차이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0년 3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정(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협회와 회보발간을 위하여 년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1394-01-0005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세요. 02-794-7270)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정회원 일 경우, 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동심회비 : 100,000원입니다.

본회의 회원은 통일회원, 동심(평생)회원, 정(년)회원으로